



투명가방끈
10주년 토론회

비전과 미션 찾기

2022년 3월 1일 / 오후 2시 / 서울하우징랩

목차 및 시간표

여는 시간 (20분) 14:00 - 14:20		
투명가방끈 OX퀴즈		
발제 (40분) 14:20 - 15:00		
발제 1. 대학입시거부로 삶과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10년의 논의 :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일움 (투명가방끈)	p.4
발제 2. 능력주의 세상 속 투명가방끈의 학력학벌차별반대운동 : 투명가방끈 앞으로 5년 활동의 목표와 방법론	따이루 (투명가방끈)	p.11
질의 응답 (10분) 15:00 - 15:10		
쉬는 시간 (20분) 15:10 - 15:30		
토론 (30분) 15:30 - 16:00		
토론1. 투명가방끈과 안티능력주의/반차별운동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별지
토론2. 학벌·학력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운동 성과, 앞으로의 방향의 논의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p.18
토론2. 학벌·학력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운동 성과, 앞으로의 방향의 논의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p.20
질의응답 (10분) 16:00 - 16:10		
전체토론 (35분) 16:10 - 16:45		
닫는 시간 (30분) 16:45 - 17:15		



[발제 1]

"대학입시거부로 삶,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10년의 논의 : '10주년 연속토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를 중심으로

일음 (투명가방끈)

● 투명가방끈 + 지켜봐온 이들 인터뷰

투명가방끈 10년간의 의미와 평가, 앞으로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모으자는 목적으로 10년간 투명가방끈을 거쳐갔던, 혹은 함께 활동했던 전/현 활동가들을 만남. 투명가방끈은 자신에게 어떤 단체인지, 투명가방끈에 바라는 것과 조언들에 대해 인터뷰 진행.

① [과거의 기억] 참여 계기, 첫 인상, 투명가방끈에 기대했던 바, 오래된 기억

▶ 새로운 길, 소속/관계망/정체성에 대한 욕구

- 단순히 대학 진학/비진학의 선택지에서 벗어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
- 정체성의 욕구. 외롭지 않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기존 청소년 운동에서 나의 대학거부자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고 싶었다.

▶ 커뮤니티 vs 운동단체? 삶이 운동이 된다는 것

- 비진학 20대의 관계망이 한정적임을 느꼈고, 투명가방끈과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고민.
- 청소년운동의 맥락에서 학벌주의나 대학서열화 반대 등 운동적으로 풀어내려는 욕심과 다르게 그 해에 언론에서 다뤄지고 이슈가 된 방식은 대안적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삶에 집중되던 맥락이 있었고, 단체로서 투명가방끈이 등장해 운동을 만들자고 생각.
- 삶이 운동이 될 수 있구나. 거부 이후가 훨씬 무겁구나, 훨씬 세상을 바뀌나갈 부분이 많구나, 거부자들의 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 그런 실존적 고민을 모두 나눠 가지는 것.

② [현재 투명가방끈은?] 현재 활동 키워드

▶ 학력 차별의 세계와 학력 무관의 세계

- 한 학생분이 자기가 보기엔 대학을 가냐 안 가냐의 문제보다는, 의미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인 거 같다고 하던 게 충격적. 고졸 검고도 이수 안 받거나 통과 못

하는 이들이 겪는 세계는 학력 차별의 세계가 아니라 학력무관의 직업세계. 이미 이 세계 청소년들의 주요 업종은 알바고, 그런 상황에서 학력차별 문제는 자기 문제가 전혀 아님.

- 대학 비진학과 투쟁 사이의 고리를 연결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투쟁을 학생들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치는 일처럼 바라봄. 대학 거부의 운동성을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고민.

▶ 비진학자의 네트워크, 안정적 삶의 기반

- 그래서 투명가방끈의 어떤 활동이 이들과 연결될까 생각했을 때, 사회주택이라던가 기반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이 맞닿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활동가들이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 공공이 해야 하지만 개별의 관계로 남아있구나 싶기도.

▶ 투명가방끈은 무엇을 바꾸었나: 세력화, 조직화, 확장 등에 대한 고민

- 10년간 투명가방끈이 크게 바뀌지 않은 거 같다. 10년간 똑같은 소리 했는데 아직도 유의미한 것일수도, 한편으로는 10년 전 구호와 지금이 구호가 동일하다는 건 변화하는 세대에 투명가방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수도. 투명가방끈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대학입시거부라는 행위 자체인듯하다. 그 이후의 고민은 잘 안 되고 있다.

③ [미래를 그리며] 고민과 제안, 하고 싶은 활동

▶ 가시화/새롭게 만나기

- 대학 비진학자의 삶을 조사하기. 비가시화된 삶을 드러내기.
- 투명가방끈인 누군가가 '어 저기서 하는 활동이 나를 위한 활동이구나' 알 수 있는 곳이길.
- 투명가방끈으로서의 커뮤니티가 필요. 그냥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의 무언가라도, 인생이 좀 불길하단 느낌이 들어도 같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서.
- 비진학 후 알게 모르게 고립된 청년노동자, 탈학교 청소년 같은 사람들을 만나 활동이 파괴력을 가지는 방향성을 생각한다. 단순히 오세요가 아니라 좀 더 삶, 노동의 문제를 갖고 만나야 하지 않나.

▶ 기존 거부선언 그 이후, 담론/조직 확장, 투명가방끈이 외칠 메시지

- 막막함을 해결할 우리의 활동기반을 만들자. 탈학교, 평생교육, 노동, 환경 등. 사회적으로 외치려면 우리가 준비된 담론이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 얘기만 있으니까. 노동이나 사회적 안정망에 대한 이야기가 탄탄해야 한다.
- 거부선언에 대해서, 거부선언에 대한 부담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생각한 건 거부선언 자체가

단체의 존재 이유가 되며 그 자체가 목표가 된 느낌을 받았다. 또한 개인에게는 선언이 내 선택에 대해 사회적 의미를 정리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선언이 발목도 잡는구나. 마음이 바뀌는 것까지 포함해서 선언의 과정이 더 촘촘해지면 좋겠다. 당일행사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 우리가 무엇을 거부했는지, 무엇을 거부하고 살아갈 것인지가 명확해지고 확장되는 게 필요. 현실적인 이유로 대학을 선택하지 않기도 하는 흐름들이 생겨났을 때, 대학을 거부한단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10년전과 비교해 바뀐 현재에서도 대학은 당연하지 않다고 외치는 그 맥락을 살려서 더 밀어붙여 봤으면 좋겠다.

● 1차 투명가방끈 10주년 맞이 연속 내부 토론회 - 8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위의 인터뷰를 통해 투명가방끈의 요구가 10년간의 변화에서도 유효한지 점검할 필요를 느낌. 10년간 바뀌지 않은 8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10주년 맞이 연속 내부 토론회를 진행.

<주제 ① : 학생인권>

- 줄 세우기 무한경쟁교육에 반대한다.
- 획일적인 정답만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주입식교육에 반대한다.
-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발제] 투명가방끈의 학생인권 관련 과제

- 10년동안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위치에 여전히 놓여있다. 이 이야기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 학생들을 과도하게 잡아두지 않는 것이 논점이 되기도 하는 학생들의 존엄성, 발언 권력이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 내 시간과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교육/터디고 느끼고 똑똑하지 않은 몸이 받아들여지는 교육이 필요.
- 대안 학교가 아니라 학교 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탈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

[전체토론]

- 2번 요구안을 현재성이 좀 드러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획일된 주입식 교육보다도 세련된 주입식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자.
- 결국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 교사가 기존의 평가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학생이 권력을 가지기 어려움.

- 학교를 때려치더라도 학생일 때 받던 국가재정 지원은 그 이의 삶에 쓰여야 한다. 학교밖의 삶을 선택한 이들의 권리를 잘 호명하는 언어를 개발하는 것도 투가끈의 중요한 역할.
- 투명가방끈이 학교 안에서의 소수자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며 학생인권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 한 트랙, 이미 탈학교 한 이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트랙으로 갈 수도.

<주제 ② : 학력/학벌차별>

-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가야 한다는 편견과 강요에 반대한다.
- 대학과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학벌차별과 학벌사회에 반대한다.

[발제] 투명가방끈의 학력/학벌차별 관련 과제

- 대학은 필수라기보다 개인의 가성비에 맞는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 변화, 대학 정원보다 학생수가 적음으로 인해 학력 차별의 기준선이 높아지며 오히려 저학벌자도 저학력자와 함께 학력무관의 세계로.
- 수능의 달라진 위상에 맞춰, 학력학벌에 문제제기할 방식을 바꿔보자.
- 소위 지잡대인들과 연대할 방법을 찾아보자.

[전체토론]

- “대학은 모두가 가야한다”의 반댓말은 “대학은 모두가 가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모두가 대학을 갈 수 있다” 아닐까.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자고 하면서 그 변별력을 흐트리 버리는 운동을 해보자. 그 경우에 학력 상관없이 기본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
- 능력을 키우는 부분들을 사회에서 방기한 채로 점수만 매기는 학력학벌주의 사회에서, 그 부분을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

<주제 ③ : 교육운동>

- 줄 세우기 무한경쟁교육에 반대한다.
- 교육의 목표가 입시와 취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누구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발제] 투명가방끈의 교육운동 관련 과제

- 줄세우기 무한경쟁교육에 반대한다는 요구안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하자. 여러줄로 세우라는 말은 분명 아님. 현재 안티 능력주의 팀에서 실질적 서열화에 반대하는 주장을 고민 중.

- 교육의 목표가 입시-취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운동에서 전면적이지 않았었다.
- 교육 예산 확보 등 역시 구체적 운동 의제가 아니었다. 세세히 따져볼 역량 필요.
- 교육운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도 필요. / 대신 공약으로 만들어도 바뀌지 않음. 단체들과 관련자들을 어떻게 움직여서 교육운동으로 만들어낼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

[전체 토론]

- 현실적인 이유로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도 많은데 입시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 시스템이 있음. 과잉대표화된 소수들에 맞춰 경쟁의 방법론에 대해서만 치열히 논의하고 그 밖의 삶을 사는 학생들에게는 교육 이슈 자체가 본인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을 깨야 함.
- 교육운동으로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1순위 청소년/2순위 비청소년 지방대인? 후자의 경우는 교육을 바꾸자보다 차별금지법이 와닿지는 않을까?
- 청소년을 조직화하기가 가능할까? 아래로부터 학생들이 입시폐지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이 해관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학중에 쓸 수 있다거나 하는 선까지만.
- 그럼에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 자생적으로 솟아오르길 기대하지 말고 그런 개인들을 발굴하자.
- 이미 같은 뜻을 가진 개인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분위기를 만들며 “달게 하는 것” 종류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 동참이, 정상성에 대한 이탈이, 이 운동이 내 삶을 망칠거라는 두려움을 털어내는 작업이 필요. 입시를 증오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으니 증오를 잘 가꿔서 불안을 걷어내는 운동을 만들자.
- 활동가들을 만들어갈 때, 주변의 관련 단체들과 함께 연결되며 가면 좋겠다. 어떻게 네트워킹하냐가 고민.

<주제 ④ : 사회권 운동>

•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제] 투명가방끈의 사회권 관련 과제

- 노동의 재구성이 활동가들의 핵심적인 고민과 욕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 다다다협동조합과 같이 파편화된 비진학자를 연결하는 전략으로 풀뿌리 만들기.
- 현재 추진 중인 안티 능력주의 활동에 집중. 안티능력주의 활동은 개인을 파편화시키며, 극단적 개인주의에 맞서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 연대를 구축하는 활동으로 의미가 크다.

[전체토론]

- 우리가 다른 운동과도 교섭할 만한 자원이 부족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고민을 정리하여 교섭할 만한 자원, 교차점들을 찾아야 한다.
- (a) 노동의 재구성 담론장을 연다. (학습노동, 공공시민노동, 사회적가치를 생산하는 활동 무언가/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능력, 잉여력에 대한 재구성)
- (b) 탈시설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시설화된 삶"과 연결해서 투명가방끈은 정상적 생애주기에 반대 활동을 해보자.
- (c) 교육문제를 공공, 사회권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으로 기획해보자.
- (d) 안티능력주의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구체화하는 활동. 막연해서 어려운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노동, 장애, 보건) > 동물권 등 투명가방끈이 기존에 연결되지 않던 의제와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 안정적 운영 담보 필요. 연대를 부르는 연대는 긴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단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여전히 역량이 고민.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 튼튼한 비진학자 풀뿌리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 2차 투명가방끈 10주년 맞이 연속 내부 토론회

[결정사항]

(1) 집중의제

- 1단계 (5년) : 능력주의 반대, 학력학벌차별 반대
- 2단계 (10년) : 능력, 교육을 생애주기과업으로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고민하도록 만든다.

(2) 대학입시거부선언 진행 여부/단체명 변경

- 우선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진행하지 않는다.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알리는 적극적 실천의 한 방법으로 대학입시거부선언/탈학교 선언/입시경쟁거부선언 등이 고려되고 안내될 순 있음.
- 단체명은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투명가방끈’으로.

[고민]

능력주의 반대와 같은 키워드들이 어떻게 운동이 될지에 대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음. 두발 규제반대같이 명확하지 않은 느낌. 사람들마다 학력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르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되면 좋겠다.

● 최종 소결론 5가지

- ① 8대 요구안 주장을 구체화해서 투명가방끈이 원하는 교육/세상을 구체화하자.
- ② 입시경쟁교육, 학력 학벌 차별 사회의 변화된 지형에 맞춘 활동을 기획해보자.
- ③ 투명가방끈이 만나는 대상을 늘려보자. (대상, 단체)
- ④ 결의가 필요한 거부선언 외에도 다양한단계/수위의 활동 필요하다.
- ⑤ 투명가방끈, 뭐라도 해보자.

[발제 2]

능력주의 세상 속 투명가방끈의 학력학벌차별반대운동
 - 투명가방끈 앞으로 5년 활동의 목표와 방법론

파이루(투명가방끈)

1.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부의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인 58.5%를 소유하고, 하위 50%는 전체 부의 5.6%만을 나눠진다고 한다. 소득 격차로 보아도 상위 10%와 하위 50%는 1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를 펴낸 세계 불평등 연구소(WIL)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소득은 서유럽 평균과 비슷하지만, 소득의 분배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서술했다. 이 격차는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벌어져 왔고, 그 이유로는 시장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약한 사회적 안전망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 국가소득 수준에도 훨씬 평등하게 부를 분배하는 나라들이 여럿 존재함에도 왜 한국에서는 모두가 이 불평등을 어쩔 수 없는 것,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까?

투명가방끈은 한국사회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생애 주기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학교에서부터 1등급과 9등급, 승자와 패자로 가르치는 사회, 차별을 공정한 것으로 포장하고 능력주의 옹호로 이어지는 사회가 지금의 모습이다. 내가 못 사는 건 내가 공부를 못해서, 더 노력하지 않아서, 라는 생각과 감각이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출신 학교에 따라 대접도 임금도 다르게 하는 사회에서라면 누구나 불평등과 각자도생은 미덕으로, 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협력하고 연대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 혐오의 대상으로 대한다. 불평등의 반대가 평등이 아니라 공정이라고 왜곡되는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무기력과 좌절감에 휩싸이게 된다.

투명가방끈은 그간 무한경쟁/입시중심/서열화 사회에 맞서 교육 및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무한경쟁의 핵심 동력이 바로 학력학벌 차별이다. 학력학벌차별이 사라지지 않으면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이제는 익숙하게 들리는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시기이다. 학력학벌 차별은 능력주의에서 기인했지만, 대학진학률이 올

라가고, 학령인구 감소와 양극화가 지속된 지금, 학력학벌은 능력이라기 보다는 노력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다. 매우 평균적인 노력과 성실성만 갖추고 있다면 4년제 대학 진학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12년의 초중등교육과정을 착실히 이수하고 나면 당연하게 4년제 대학 짚은 진학할 수 있고, 이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은 '노력의 부족'으로 취급하는 시대가 되었다. 현실에서 교육과정 내의 학생들이 전혀 균질한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 대학입시거부선언자의 단체에서 반차별단체로 - 반차별/안티능력주의/나도 투명가방끈

투명가방끈은 능력주의 담론과 학력학벌차별반대 담론을 운동적으로 연결하고 주장하고자 한다. 능력주의는 단지 학력학벌이라는 일률적 기준을 여러가지 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학력학벌차별반대만을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 대안이 능력주의적인 다방면 경쟁사회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성소수자 차별이 단순히 개인이 어떤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선천적이나 혹은 개인의 선택이나 문제가 아니라 헤테로 가부장제 중심적 사회를 유지하려는 문제이듯, 학력학벌차별이나 능력주의차별 또한 경쟁방식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학력학벌 경쟁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격렬해 졌다가 그 이후의 삶에서는 직접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러다보니 한 시기의 경쟁 이후 승자는 추가적인 노력 없이 평생을 편안하게 살고, 패자는 그 시기의 실수나 불운 등의 이유로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야 한다는 상황의 불합리성이 두드러져보인다. 이에 비해 능력주의 담론은 지속적인 경쟁을 통해 역전이나 패자부활전이 가능해 보인다. 때문에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보다 합리적으로 보이게 된다. 실제로는 개인의 능력은 적성, 건강, 계급, 환경, 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위 그룹에서 시작했던 사람이 역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능력주의 담론 하나만 놓고 납작하게 보았을 경우에 가능해 보이는 착시가 일어난다.

학력학벌차별반대 담론과 능력주의 담론 모두 경쟁을 통해 성과물을 차등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포한다. 이 경쟁에서 탈락한, 혹은 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개인들은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 문제, 주거문제, 빈곤 등을 해결하는 데에 사회적 비용을 투자하기 보다는, 경쟁이라는 방식을 통해 패자에게 그 자리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정당화한다. 일종의 징벌적 성격마저 띄고 있다.

오랫동안 특히 학력학벌 차별에 관련해서 대안으로 제시된 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와 같은 교육 분야의 변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회 전반 또는 노동에서의 학력학벌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 운동이 본격화된 건 차별금지법/출신학교차별금지법의 형태로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학벌없는사회' 같은 단체가 만들어져 문제를 제기하며 활동했지만, 그때 본격적으로 운동이 벌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주저하게 된다.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학력학벌 차별의 문제를 이슈화하거나 개선을 위한 정책 구현을 요구하고 나서는 부분은 약했던 것 같기 때문이다. 학력학벌차별 반대 운동의 밑바탕이 되는 주장의 측면에서도, 과거의 학벌주의 반대 운동은 전근대적 패거리 문화인 학벌을 극복하고 근대적·개인적인 능력에 따른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최근의 한국 사회 담론 지형은, 학력학벌차별의 노골화와 패거리 문화의 어느 정도의 해체 위에서, '능력주의 비판'의 형태로 학력학벌차별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즉, 이슈화나 제도화 등의 요소를 살펴보면 교육 외 영역에서도 학력학벌차별 반대 운동이 제대로 기획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명가방끈에서는 2021년동안 1년의 내부 논의 기간을 거치며, 투명가방끈이 '대학입시거부선언자가 모인 단체'가 아니라, '학력학벌차별 반대/능력주의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를 지향하자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대학입시거부라는 선언에 참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내기 위해서이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통해 투명가방끈은 대학입시 경쟁 반대, 교육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단체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는 이를 더 확대하여, 학력/학벌/능력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차별 전반에 문제제기를 하는 단체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3. 앞으로 반차별운동, 안티능력주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활동 의제에 관해

첫째, 안티능력주의 운동과 반차별 운동과의 연결점을 찾는 과정에서 투명가방끈은 먼저 경쟁을 통한 분배라는 방식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 한정된 재화와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지만, 이미 사회의 자원은 재분배를 통해 넉넉히 분배될 만큼 넘쳐나는 상태이다. 단지 이제까지 경쟁의 승자로 살아왔던 이들이 축적해 왔던 것을 사회가 공유화-재분배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매우 클 뿐이다.

둘째, 학력학벌차별과 능력주의 차별이 동일 선상에 있는 것임을 주장한다. 능력이 개인만의 노력을 가지고 성취되지 않으며, 사회 전체가 이를 돕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

교육은 이미 부유하고, 건강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정적인 심리상태에, 선천적으로 지능이 뛰어난 이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능력을 더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소의 계층에게 할애 되어야 할 노력과 지원은 부족해 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점은 과소평가 되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성과물은 개인이 오롯이 가져가는 것이 옳다는 담론이 지배적이다.

셋째, 행복추구권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투명가방끈에서는 이제까지 우리들의 불안하고 불행한 오늘과 내일을 바꾸자고 외쳐왔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리는 경쟁의 승패와 관계 없이 모두 행복하고 싶다고 주장할 때이다. 투명가방끈에서 지속해 왔던 대학입시거부 선언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들의 지속적인 논리 중 하나가 “대학에 가기 위한 노력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떼를 쓴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좀 더 뻔뻔하게, 삶의 안정과 행복은 경쟁의 고통이나 성과와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임을 주장하려 한다. 혹자는 경쟁에서 승리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므로 이것 또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이들의 기본적 권리 침해에 기반하므로 혐오표현의 자유와 비슷한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승자가 패자의 몫을 빼앗아 가는 장면이 잘 포착 되지 않는다. 학교나 입시, 각종 시험 등의 절차가 중간에서 이를 차등분배하는 방식이므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명료하게 설명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 활동 방법에 관해

위의 활동 의제들은 추상적이고, 변화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투명가방끈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세밀화 해서, 현재 일어나는 학력/학벌차별, 능력주의적 차별 이슈에 대응해 나가는 활동들을 통해 투명가방끈이 원하는 교육과 사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려 한다.

투명가방끈은 학력학벌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기업 등에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들에 문제제기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해보고자 한다. 기업에서의 학력에 따라 취업의 기회, 승진이나 임금협상의 기회 차별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 전반의 대졸과 고졸 간 임금 격차를, 출신 학교에 따른 입시-취업에서의 차별 사례를 드러내고 해결할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하나같이 경력직만을 원하는 현상, 새로운 사람의 역량과 능력을 위해 투자하기를 거부하고 그 성장의 비용을 개인에게 떠 넘긴 채 열매만을 취하려 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례와 논리-메시지이다. 또한 이런 활동을 하는 한편으로 우리의 주장을 잘 정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꾸준히 능력주의 비판, 학력학벌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가공하여 홍보하는 활동을 기획하려 한다.

이런 활동들이 구체적 해결 방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이나 대학평준화 등의 요구로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 그다음 단계이다. 학력학벌차별 문제가 이러한 정책과 노력을 통해 해결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만이 운동의 목적이 아니고, 법에 관한 운동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유념할 필요는 있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이라면 학력학벌차별 사례들에 그 법이 적용되어 해결되도록 하고 법을 현실화, 구체화하는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꾸리고 쌓아나갈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표어나 내용으로 이슈화를 위한 사업이나 캠페인을 벌일 것인가? 어떤 유형의 사례부터 타겟팅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고졸/지방대생들은 사회적 차별은 자기 개인 책임이라는 패배의식 등을 내면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의 주체로 움직일 수 있을까? 구직자라는 포지션은 기업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을’인데 문제제기에 나설 수 있을까? 그럼 이미 고용이 된 상태인 노동자가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노동조건 등에 관해 겪는 차별 문제부터 다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무엇부터 다루는 게 좋을지, 어떻게 이런 사례들을 서로 연결시켜 사회구조적으로 연관된 문제임을 드러낼 것인지 운동 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입시거부 또한 단발성 하루 퍼포먼스보다 장기적 기획 속의 클라이막스로 배치하는 등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의제의 필요성 면에서 유효한 활동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입시경쟁반대의 날, 퍼포먼스, SNS상에서의 인증운동 등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 투명가방끈이 만나야 할 사람들에 관해

학벌학력차별 반대/안티 능력주의를 말하며 만날 수 있는 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번째는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경쟁적인 교육과 대학입시 시스템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 노력하지만, 불만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교육과 경쟁은 분리되어야 한다, 대학은 경쟁의 트로피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위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운동에서 이미 연대체를 통해 함께 하고 있는 교육과 경쟁의 분리/입시폐지 대학평준화&무상화 등의 의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두번째는 현재의 교육이 잘 맞지 않아 탈주한, 혹은 배제당한 이들, 이미 사회적으로 주변부에 위치지어진 이들이다. 탈학교 청소년/대학비진학자/소위 '지잡대' 학생 등, 삶에서 이미 학력학별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이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나 제도를 바꾸는 주장과 행동을 해 나가려 한다. 고용이나 직장내 임금/대우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학력/학벌 차별적인 사회적 용어들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활동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 이는 학력, 학벌과 관련 된 제도를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제도들의 근간이 능력주의적 차별에 있음을 드러내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투명가방끈은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떠한 운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두 집단을 아우르는 것이 반차별, 능력주의 반대라는 언어라고 기대하고 있다. 1년간의 투명가방끈 내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까지 우리의 운동을 지켜보고 함께했던 많은 이들의 고민을 모아내어 조심스레 투명가방끈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답을 내리려 한다.



[토론 1]

투명가방끈과 안티능력주의/반차별운동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06년 | “...사적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일 뿐 아니라 헌법상의 사용자의 재산권(제23조 제 1항)을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질서(제119조) 및 사기업의 자율경영(제126조)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될 것임.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상 평등의 개념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실질적 평등의 개념’을 넘어 지나치게 규범이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우리의 법·경제·문화적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 ... 기업의 인력운용 전반에 증대한 악영향을 미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국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임.”¹⁾

2011년 | “학력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서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인식하여야 하며, 학력 활용의 금지는 기업의 사적자치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이며,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국가도 없음.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공서열형 인사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력활용의 제한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 동 법률안의 제3자의 차별구제 신청, 입증책임 전환, 사업주의 고용 관련 정보공개의무 등은 법적 기본원리와 배치되며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 야기”²⁾

2021년 | “차별금지법, 또 다른 '기업 옥죄기' 되나”

“대출조건 차등·학력별 임금차이까지 '불법'이라는 차별금지법”

“가해자로 지목되면... 차별 안했다고 입증 못할 땐 손해배상 책임”³⁾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학력을 대신하여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⁴⁾

1) 이형준(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팀장),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2006년 3월 28일.

2) 한국경영자총협회, “학력차별금지법(안) 관련 경영계 입장 주요내용”, 2011년 7월 21일자.

3) 한국경제, (세 기사), 2021년 6월 21일자.

4) 교육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한겨레, “학력 차별은 합리적?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빼자

“본인의 선택과 노력이 들어가는 학력과 같은 변수는 여기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학력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고 금지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풀기 어려운 복잡미묘한 문제가 발생하고, 도처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올 것이다. ... 차별금지법에 온갖 조건을 들이붓는 것은 차별금지의 좋은 방법이 못 된다. 23개는 너무 많다.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⁵⁾

“선언하듯이 차별 금지하는 항목들을 늘리기보다는 애매한 것들은 제외하고 정말 인권의 보호에 결정적인 것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면 不要不急한(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차별을 골라내어 혼란을 줄이는 것도 현명한 길”⁶⁾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서 학력·학벌 차별의 ‘사회적 쟁점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서 예측했지만 당도하지 않은 미래로 ‘재계의 반대’가 있었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규율 영역이 고용이고 가장 많은 쟁점을 담고 있지만, 그 동안에는 혐오의 정치에 밀려 자본과 시장의 목소리는 비가시화 되어 있었다. 2007년 법무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병력(病歷), 성적지향, 언어, 출신국가, 학력)를 삭제한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기 전부터 학력학벌·고용형태 차별금지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 입장은 2010~2011년 당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발의로 학력차별금지법이 논의되던 시기도 크게 사회적 논쟁으로 부각되지는 못했다.⁷⁾

현재 차별금지법이 ‘기업 옥죄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들이 가시화된 상황은 그만큼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보수개신교 반대 진영과의 싸움을 넘어서 제정 운동이 새로운 논쟁의 장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논쟁의 시작에서 성별, 학력·학벌·출신학교, 사회적 신분으로 자리매김한 고용형태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합리적인 (능력) ‘차이’에 근거한 정당한 ‘차등’ 조치라는 주장들을 정면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다. ‘회복’을 갈구하며 노동세계를 계속 후퇴시키는 정치와 자본의 움직임,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평등을 기대할 수 없다면) ‘공정’하기라도 할 것을 요구하는 흐름이 가시적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한 차별금지사유의 삭제

는 교육부”, 2021년 6월 27일자.

5) 이정우(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경북대 명예교수) “[이정우의 우문우답] 차별금지법, 어디까지?”, 영남일보, 2021년 7월 6일자.

6) 김홍진(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차별금지법과 기업 현장의 혼란, IT조선, 2021년 7월 15일자.

7) 한나라당까지 나서 학력차별금지법이 추진되던 2010~2011년 시기와 달리 차별금지법이 7년만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020년 이후 학력·학벌 차별금지에 대한 정치의 입장 변화를 노동시장의 변동이라는 조건에서 살핀 다음 글 참고. 명숙, “공정담론이 삼키려는 학력차별과 차별금지법”, 노동과세계, 2021년 7월 23일자.

제 혹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던 혐오선동세력과 같은 방식('그것은 차별이다, 차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으로 싸워나갈 수 있을까?

정치적 장에 시민으로 등장하기 위해 요구했던 권리와 역량을 능력과 경쟁력으로 구분하고 제한하려는 흐름 속에서, 혐오와 마찬가지로 능력주의와 공정, 저학력-비정규직 혐오와 안티페미니즘을 필두로 한 역차별 담론은 이미 우리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다. 평등을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위치시키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 고자 했던 투명가방끈의 학력학벌차별반대 운동과 서로 배우며 함께 돌파해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력·학벌 차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지식을 넓히는 일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주로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시험이라는 경쟁 절차를 통해 특정한 사람의 능력을 공정하게 측정·판단하고 그 성취를 개인의 고유한 노력으로 인정하는 논리를 향해 있다. 학력·학벌 특권과 차별은 바로 그 능력과 노력에 대한 댓가로 정당화된다. (조례에 따라 자자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4년제 대학에 한정해서 전문대와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을 배제하는 경우⁸⁾, 교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의 출신학교가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인지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반영한 경우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특권과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판단 기준, 적용 영역과 방식이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학력·학벌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안티능력주의 운동'은 학력학벌 차별을 철폐하려고 하는 반차별 운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력·학벌 차별이 다른 차별의 구조와 어떻게 결부되어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차별 경험이 등장하고 이것이 '차별'이라는 사회적 경험과 지식으로 통용될 필요가 있다.

2019년 고졸 공채를 통해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여성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학력·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¹⁰⁾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일반직 대졸 직원이나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에 비해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길고, 20년 넘게 근무해도 사원 직급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인사평가뿐만 아니라

8) 국가인권위원회 2011. 6. 10.자 결정 11진정0066700 ○○학사 입사시 검정고시 출신자 배제

9) 국가인권위원회 2009. 9. 16.자 결정 09진차136 출신학교에 따른 기간제교원 모집 차별

10)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1036600 학력과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2019. 10. 29.자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 관행에 관한 개선 의견표명 결정.

상위직급 업무 수행 가능성과 중장기 성장가능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진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 동일한 성별이나 학력, 근속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위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상은 학력이나 성별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해당 회사에서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은 과장 직급 이상이 90%가 넘지만,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단 5%에 불과했다. 일반직 고졸 직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약 9년이지만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의 경우 14년이 넘었다. 게다가 일반직 고졸 남성과 비교하면 2배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성별 불균형과 성별 격차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증언하듯이 채용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분리채용(고졸/초대졸/대졸)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업무배치가 이후 전 노동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 일터에서의 차별은 행위자 개개인의 일탈이거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집단 정체성에 따라 다른 수준을 기대하고 요구받는 과정, 기업에서 노동을 배치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구조화되지만, 그 원인으로는 '여성(남성보다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경쟁하거나 헌신하지 않아서)', '저학력(역량이 낮아서)' 등이 지목된다.¹¹⁾ 노력과 능력에 따라 정당한 차등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특정 집단/정체성에 특정한 자리와 역할을 할당하면서 '능력 없는' 존재로 만드는 차별의 구조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력·학벌 차별이 경쟁과 승자독식의 시스템과 함께 맺고 있는 기존의 차별 구조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

행복추구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 : '자기 책임(self-responsibility)'을 변화시키는 일

최근의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능력주의가 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이나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내면화하고 있는 믿음이자, 개인의 사회적 계층이나 학업 성적에 따라 별다른 차이 없이 공통적인 사회 인식으로 자리 잡혀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계층 상승에 대한 독일 사회의 중상층과 중하층의 인식을 비교한 "능력주의 약속의 붕괴? 불평등 증가 추세 속의 주관적 계층 상승 인식"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층 상승에 성취적 특성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모든 사회 계층에 고루 퍼져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하층 출신이 계층 상승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능력을 쌓아야 한다는 인식은 한국사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장년층은 이러한 계층 상승을 위한 과정을 개인 내면의 강점을 키움으로써 도덕적 긍

11) 교육과정의 성차별 구조가 여성들에게 '하향의 지적 운동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는 연구결과는 젠더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일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볼 근거가 된다.

정성으로 거듭나는 '투쟁'의 과정으로 인식하며, 개인이 능력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사회조건의 악화 속에서도 오히려 '인성 강화의 출발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적어도 스스로를 '도덕적 승자'로 내세울 수 있게 된다.¹²⁾

이러한 현상을 한국사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까? 할당제로 대표되는 '적극적 (개선) 조치'에 대한 사회적 반발, 역차별 주장은 능력 없는 소수자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노력한 자신이 피해를 본다는 '피해자 되기' 현상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능력을 갖추었다는 도덕적이고 우월한 승자의 위치를 점유하는 방식을 취한다. 성취의 결과가 자기 책임의 문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정해진 파이 싸움 문제로 여겨질 때 자기 강화에 몰두하는 개개인의 경향성은 사회적 경향으로 쉽게 전환된다.

특히 역차별 담론은 평등이 민주주의의 확대나 경제성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로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힘을 얻어왔다. 그 과정에서 '혜택'과 '자격'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권력이 정당화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시민으로서의 참여 확대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로 전환되면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장한 적극적 조치 이른바 할당제는 국가 지원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존으로 문제화되었다 ('그러므로 여성도 성별을 이유로 혜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능력으로 경쟁해라'). 또한 생존과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기획의 확장 속에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동등한 지위를 얻고 싶다면 다시 시험을 쳐서 SKY에 입학해라, 정규직으로 입사해라'). 이 과정에서 '공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지향이 탈각된 채, 능력주의에 잠식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인의 능력은 오롯이 개인의 성과물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자원을 독식하고 사회적 조력을 점유할 수 있었던 결과라는 비판, 승자가 패자의 몫을 차지하는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평등할 권리의 요구를 한정된 자원 분배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적 관점,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성장시키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자원과 조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행복추구권이 개인의 권리라기보다 평등이라는 상호인정 속에서 실현가능한 권리(서로를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하겠다는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약속으로서의 평등)라는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파트리크 자흐베, 자라 렌츠, 에벨린 슈타머 저, 홍찬숙 역, "능력주의 약속의 붕괴? 불평등 증가 추세 속의 주관적 계층 상승 인식",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엮음(2021),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사월의 책, 36~37쪽.

투명가방꾼이 만나야 할 사람들, 투명가방꾼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결과로 수많은 언론에 회자되었다. 그 숫자 만큼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차별받은 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대응으로 응답한 결과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로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했고, 직장 내 차별은 고용형태(86.0%) 다음으로 학력(72.4%) 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1년 동안 차별받은 경험을 떠올렸을 때,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에서는 40대(39.7%)와 학생(39.2%)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학력·학벌차별을 문제제기하는 운동이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만나는 것이 필요할지를 가늠해 보는 지표가 된다. 대학거부자와 비진학자, 교육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탈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속선상에서 학력·학벌 차별을 경험하는 청소년-비청소년 노동자들이 더 많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학력차별을 경험한 이후 사람들의 대처 양상이다. 전체 평균(71.7%)보다 높은 무대응(72.4%) 숫자, 평균(29.4%)을 훨씬 밀도는 가해자 시정 요구(15.5%)는 우리가 찾아나가야 하는 질문이 '차별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차별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권리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체계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생존의 요구, 삶의 문제라는 선언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지, 시민들의 삶의 취약성을 만들어내는 구조와 권력관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애초의 노동시장이 젠더와 섹슈얼리티로부터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성별화 과정(gendering process) 그 자체라는 사실을 폭로했던 수많은 #미투 운동 속의 여성 대중, 시험을 잘 본다는 능력이 직업능력, 대인관계, 리더십까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흐름을 거부해 온 청소년인권운동 및 청년운동, 복지를 통해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장애인 노동권을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 만들어 가려는 진보적 장애인권운동, 차별과 불평등이 개인의 능력과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학력·출신학교에 기반해 입직 과정에서부터 촘촘하게 위계화된 노동시장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온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자들... 그리고 소수자라는 지위를 여전히 특수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정치경제 제도와 사회문화, 선별과 분류의 자격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기득권에 맞서서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싸우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반차별 운동이 능력주의에 맞서는 학력·학벌차별금지 운동을 통해 만나 어떤 연대를 키우고 차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될지, 투명가방꾼의 운동을 통해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토론 2]

학벌·학력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운동 성과, 앞으로의 방향의 논의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지난해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조사에서 '취업에 자신이 없는 이유'로 '학벌이 좋지 못해서'가 15.5%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이 16.7%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학벌·학력 차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쉽지가 않다. 이러한 차별을 하더라도 법적 처벌조항이 전무하고, 정부도 능동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학벌·학력 차별의 일상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지만, 마냥 국회가 움직여 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벌 체제를 견고하게 만드는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현실적인 운동방식으로 판단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운동이다. '홍길동 00대학교 합격'과 같은 현수막들이 학벌에 대한 차별이라며 문제제기 한 것이다. 처음엔 단순히 현수막 철거라는 사소한 일처럼 여겼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자체 고위공직자나 특목고·전문대학교 입학생 중 특정학교 출신자들의 독점을 찾아내는 등 사회 뿌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학벌 문제를 파헤치고 사회에 고발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와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 강사료 지급 기준 개정, 대학도서관 시민 개방, 장학금(숙) 지원기준 개정, 인사기록카드 개정, 현역병 입영제도 개선, 광주시 고졸자 취업조례 이행 등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학력·학벌 차별을 해소하는 활동도 해나가고 있다.

그밖에도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등 인권 구제기관에 학벌 문제의 근간이 되는 입시경쟁, 교육기본권 침해 등 문제를 제기하여 권고(의견표명)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 교육기관의 인권행정을 구현해 왔다.

[입시 모순 완화]

-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 문제 개선」
- 「유아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

[학벌, 학력 차별]

-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자 지정에 따른 차별 문제 개선」
-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

[교육 기본권 침해]

-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대체식 미제공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개선」
- 「소수 종교 학생들에 대한 할랄급식 미제공에 따른 차별 문제 개선」
- 「대학교 학교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 개선」
- 「일선 고등학교 중앙계단의 학생출입금지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개선」
-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미비치에 따른 복지권 침해 문제 개선」 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긴 세월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학벌사회가 한순간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 운동의 목표는 소박해질 것이며, 작지만 실현 가능한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나갈 것이다.

[토론 3]

투명가방끈과 학력학벌반대운동의 의미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투명가방끈 10주년을 연대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10주년을 맞이해 학력 학벌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어떻게 전진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모습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선 그동안 투명가방끈이 앞장서서 벌여온 학력학벌반대운동 및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이 이제 세계 교육담론으로 승화, 공식화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교육 분야에 영향력이 가장 큰 국제기관들인 유네스코와 OECD에서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육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OECD 교육 2030'과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2050' 내용은 그동안 투명가방끈과 학력학벌철폐운동에서 요구해 온 교육과 세상의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2050과 OECD 2030은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과 사회의 변혁' '개인과 공동의 웰-빙, 지속가능 미래 건설' '협력과 연대의 교육', '학생 주체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변혁적 역량'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교육 반대' 등 투명가방끈의 8대 요구들과도 내용적으로 일치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네스코 2050의 문장 몇 개를 소개해 봅니다.

“교육 시스템은 ‘단기적 특권과 안락함이 장기적 지속 가능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왔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성공, 국가적 경쟁 및 경제 발전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서로와 지구를 돌보고, 연대하는 것을 훼손해 왔습니다.” “교육은 집단적 노력을 중심으로 우리를 통합하고, 사회, 경제 및 환경 정의에 기반을 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과학 및 혁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환경적,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기업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웰빙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춰져야 합니다.” “학습자의 행위주체성(Agency) :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사회를 변혁하고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역량 ..학생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광대하고 다양한 맥락들을 가로질러 헤쳐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학력주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해방적 프로젝트로서 성인교육” “성인 교육은 노동 시장의 목적을 위한 평생 학습을 훨씬 넘어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 모든 영역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수동적이거나 적응적이기보다, 성인 교육은 진정으로 변혁적인 학습을 중심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합니다.”

“교육받을 권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은 평생 학습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참여와 포용은 비공식 학습 - 공식 학교 환경 밖에서 습득하는 지식과 능력 - 의 진가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는, 성인 교육의 해방적 비전과 함께 진행됩니다. 성인 교육 정책은 포용과 참여를 우선시하는 것의 일환으로, 평생에 걸친 비공식 학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네스코와 OECD의 이러한 새로운 교육론은 그동안 경쟁과 서열, 왜곡된 능력주의를 강요해 왔던 신자유주의 교육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지속가능 미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대전환 시대에 대한 절실한 인식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보다 평등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과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지향이 결합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온 가치와 의제들이 앞으로 실현되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자유주의에 찌들려온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인 상황. 능력주의와 학벌주의가 최고조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쟁구조’를 인정하는 왜곡된 공정담론이 그를 말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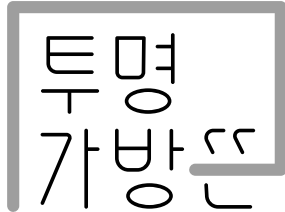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경쟁과 능력주의를 탈피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세계적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능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새로운 전망 속에서 우리들의 실천적 의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황은 끝물이고, 새로운 변화가 미래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제기구들의 이러한 변화는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변화와 그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압도적 힘과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우리는 맞서서 교육과 사회의 변혁을

지향해 왔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은 이제 반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명분과 힘을 부여해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국제적 상황 변화가 곧바로 내적 요소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내부적 행동과 실천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은 한국교육과 사회의 진정한 대전환을 바라는 사람들의 뜻일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10년이 경과하면서 그래도 꽤 많이 우리는 전진해 왔습니다. 학벌철폐운동을 지지하는 단체와 사람들의 폭도 크게 확대되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많이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적 진전을 위해 새로운 차원으로 전진해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주년 기념 발제문의 최종 소결론을 보면 실천적 의지가 느껴집니다. 더 힘 있는 실천을 응원하며 함께 연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① 8대 요구안 주장을 구체화해서 투명가방끈이 원하는 교육/세상을 구체화하자. ② 입시경쟁교육, 학력 학벌 차별 사회의 변화된 지형에 맞춘 활동을 기획해보자.”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과제입니다. 창조적 내용과 실천을 창출하는데 투명가방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위 능력주의적 ‘스펙’이 없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용성’과 ‘실천력’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더 치열한 학습과 가열찬 사업으로 우리가 바라는 교육과 사회 변화를 앞당기는데 함께해 나갔으면 합니다.



가방끈이 아닌 삶을 들여다보는 사회를 위해
지금 투명가방끈이 되어주세요!

투명가방끈은
거부선언자, 대학비진학자, 탈학교청소년 뿐 아니라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두가 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CMS)

후원회원으로 투명가방끈을 후원해 주세요!

일시후원

후원계좌 : 기업 534-026776-01-011(투명가방끈)